

김만덕 스토리 북 Ⅱ

은 恩 광 光 연 衍 세 世



김만덕기념관
www.mandukmuseum.or.kr

차례

나눔의 빛을 밝히는 **김만덕 기념관** • 4

은(恩) - 나눔으로 쌓인 만덕의 은혜 • 7

- 나눔의 행복 • 9
- 나눔으로 지켜낸 공동체 • 10
- 나눔의 자격 • 13

광(光) - 시대의 빛이 된 만덕의 도전 • 15

- 불가능을 극복한 용기 • 17
- 도전이 보여준 가능성 • 19
- 아무도 가지 않은 길 • 21



연(衍) - 널리 퍼진 만덕의 선행 • 25

- 이름을 남기다 • 27
- 차별을 넘어서 • 29
- 정직과 신용으로 일군 신뢰 • 34

세(世) - 세대를 넘어 전하는 만덕의 정신 • 37

- 만덕을 기억하며 • 38
- 나눔으로 이어진 길 • 39
- 시대의 빛이 되는 나눔의 문화 • 43

김만덕의 얼을 잇는 김만덕 기념사업회 • 46



나눔의 빛을 밝히는 김만덕기념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그 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만덕입니다.

김만덕의 삶은 도전과 나눔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녀의 의로운 삶은 추사 김정희가 남긴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글씨에 어려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은 도전과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을 기리고 그녀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나눔문화 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역경을 딛고 최고의 상인이 되어 나눔의 표상으로 성장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김만덕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보여준 그녀의 은혜로운 빛을 따라가 봅시다.





은(恩) - 나눔으로 쌓인 만덕의 은혜



- 나눔의 행복
- 나눔으로 지켜낸 공동체
- 나눔의 자격



나눔의 행복

나눔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 돈, 재능, 마음, 힘(노동력)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는 “나눔의 진짜 이름은 행복이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눔을 실천해 왔어요. 나눔으로 유명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20세기 초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던 사업가 록펠러와 카네기는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석유사업으로 번 돈으로 병원과 교회, 학교 등을 세웠고, 카네기는 철강 사업으로 번 돈으로 많은 도서관을 지어 기증하면서 자선사업과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했어요. 최근에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회장인 빌 게이츠가 매년 수백 억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세계적인 재벌로 올라선 마크 저커버

그 역시 자신의 재산 90%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말했지요. 모두 자신이 쌓아올린 재산을 아낌없이 다른 이들을 위해 내놓았어요. 이들이 보여주는 나눔의 실천은 베푸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나눔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김만덕이에요. 김만덕은 제주 최고의 상인이 되어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제주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선사업에 힘을 쏟은 만덕은 제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돈보다 진정한 행복을 선택한 것이죠.

나눔으로 지켜낸 공동체

만덕이 살아있을 때만해도 “산 높고 깊으니 물의 재앙이요, 돌 많고 땅이 척박하니 가뭄의 재앙이요, 사방이 큰 바다이니 바람이 재앙이다.”라고 할 정도로 제주는 척박한 환경을 갖고 있는 섬이었어요. 만덕이 상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제주에는 여러 해 흉년이 이어졌죠. 먹을 것



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에서 쌀을 보낸 배 12척 중 5척이 난파되고 말았답니다. 지독한 흉년에 나라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이 때 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쌀 300 석을 구입한 후 제주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채제공은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취하여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날랐다.”고 만덕의 선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만덕 외에도 현감을 지낸 고한록이 300석, 장교 홍삼필과 유학 양성범이 각각 100 석씩을 내놓았지요. 다른 이들이 벼슬을 지냈거나 지역의 명망가였던 것에 반해 만덕은 천인 출신에 여성의 신분임에도 가장 많은 재산을 쾌척했답니다. 만덕이 기부한 쌀로 제주도민 전체를 열흘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하니, 그 쌀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누구나 자신이 고생해서 번 돈을 조건 없이 내주기란 쉽지 않아요. 만덕도 자신의 부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객주에 다녀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만덕의 선행으로 제주 사람들은 다행히 ‘갑인년 흉년’이라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만덕의 나눔이 공동체를 지키는 데 한몫을 한 셈이지요.

나눔의 자격

그렇다면 돈이 많은 부자들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최귀동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남의 밥을 얻어먹는 생활을 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걸인들을 돌봐주었어요. 자신도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행에 우리는 더욱 감동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보다 남의 어려움을 먼저 보듬을 줄 아는 숭고한 정신이 깊은 감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요. 수십 만 명의 어린이가 방학에도 급식이 필요하고, 노인들의 절반은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장애와 희귀병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있지요. 이처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지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요.

만덕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것을 물질적인 나눔이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수단 남부 톤즈 마을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원주민의 병을 치료한 한국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의 사례는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어요. 노숙자들의 자립을 위해 여러 사람들의 기부로 만들어지는 잡지 <빅이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유명 연예인들이 음성을 기부하는 소리책 등의 사례들은, 작은 재능의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꼭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능 기부는 만덕의 정신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광(光) - 시대의 빛이 된 만덕의 도전



- 불가능을 극복한 용기
- 도전이 보여준 가능성
-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불가능을 극복한 용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기업가들이 국내 경영인 어록 중 1위로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봤어?”를 뽑은 것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곤 하지요.

최고의 음악가인 베토벤도 자신의 한계를 이겨낸 인물이에요. 베토벤은 어느 날부터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음악가에게 청각을 잃는다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베토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서까지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훌륭한 작품들을 작곡해 내었어요. 절망에 빠져있기보다는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만덕에게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여러 번 찾아왔어요. 과연 만덕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라는 말처럼 만덕의 용기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도전이 보여준 가능성

만덕의 첫 번째 도전은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양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만덕은 12살에 부모를 잃은 후부터 기녀의 집에서 자랐어요.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어서 기녀의 수양딸이 된 만덕 역시 천인 신분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홍길동전」에서 보듯이 서자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차별이 뿌리 깊었어요. 그러니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지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신분을 되돌려달라며 수 차례 관아에 호소를 했어요. 보통 만덕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체념하고 기녀 생활에 적응해 살기 마련이에요. 더구나 신분제가 견고했던 조선시대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만덕은 다른 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보다 주체적인 삶을 원했어요.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받



해 만덕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양인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어요.

만덕과 같이 노비의 신분을 극복한 사례로 장영실을 들 수 있어요. 장영실은 노비로 태어났지만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벼슬을 지냈지요. 장영실이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과학적 능력을 알아보고 적극적

으로 지원을 해 주었던 세종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덕의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천인에서 양인으로의 신분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특별하지요. 그래서 만덕의 신분 회복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만덕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만덕이 기녀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했다면 훗날 의인으로서의 만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 있는 도전이 있었기에 그녀는 양인의 신분을 회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수 있었어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 덕분에 자신의 꿈을 펼치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첫 발을 내딛은 것이지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만덕은 우여곡절 끝에 양인의 신분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앞날은 더욱 험난했어요. 생존을 위한 싸움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제주의 여성들은 대부분 바다를 터전으로 활동하는 해녀가 되곤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녀인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바다와 친숙해지고, 선배 해녀들로부터 물질 기술을 이어받아 해녀로서의 삶을 이어나갔지요. 하지만 만덕에게는 자신을 이끌어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길을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혁신의 아이콘이 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고,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은 디지털 음악 생태계로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또한 아이폰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변화를 선도했지요. 스티브 잡스가 시대를 선도하는 신개념의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급변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재빠르게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기생에서 벗어난 만덕이 선택한 것은 상인이 되는 길이었어요. 왜 만덕은 상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수공업과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던 시기였어요. 곳곳에 시장이 들어서면서 물건의 왕래가 늘어나고, 여러 지역의 특산물들이 유통되던 시기였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물건을 맡아 팔았던 객주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성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객주의 중요성이 더했기에 그 점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만덕은 물산객주를 운영하

면서 위탁판매를 비롯해 숙박, 금융, 도매, 창고, 운반 등의 업무를 통해 상인으로서의 능력을 점점 키워나갔어요.

만덕은 상공업이 발달하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 상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제주의 여성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제주 제일의 거상으로 거듭났어요.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만덕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어간 시대의 빛이 되었답니다.



연(衍) - 널리 퍼진 만덕의 선행

衍

- 이름을 남기다
- 차별을 넘어서
- 정직과 신용으로 일군 신뢰

김안덕기념관



일성록(日省錄) 국왕이 주제가 되어 작성된 국정 일기.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정약용(丁若鏞)의 저술



운곡집(雲谷集) 이희발(李義發)의 시문집



고식(故寔) 김희락(金熙洛)의 시문집



번암집(樊巖集) 채제공(蔡濟恭)의 시문집



추재집(秋齋集) 조수삼(趙秀三)의 시문집

이름을 남기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훌륭한 일을 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후세에 이름이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는 것을 꿈꿨지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인 조선시대에 여성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이름을 드날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덕의 선행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나라의 공식적인 기록에 당당히 기재되어 있어요. 정조가 신하들과 나눈 대화에는 만덕의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한 일이 언급되고 있지요. 그것은 만덕이 보여준 선행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조는 만덕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자 신하들에게 만덕에 대한 글을 지어 올리라고 했어요. 그 명을 받아 채제공을 비롯해 박제가, 정약용, 이가환 등 당시에



김만덕 일대기 -강부언 作

유명한 학자들이 그녀에 대한 글을 남겼지요. 만덕의 선행은 이렇게 학자들의 글을 통해 널리 알려졌어요. 만덕은 아름다운 나눔을 보여준 인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지요.

우리도 학자들의 기록 속에서 시대를 뛰어넘어 만덕의 선행을 다시금 만나고 있어요. 한 명의 여인을 위해 당대의 대가들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그만큼 만덕이 보여준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차별을 넘어서

정조는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명을 내렸어요. 만덕이 원한 것은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가 아닌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여행이 아닌 왕이 사는 궁궐과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강산을 둘러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제주는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제주 사람들이 허락 없

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육지 사람과 혼인까지도 금지할 정도였어요. 넓은 바다 속에서는 한없이 자유로웠던 제주의 여인들이 바다를 건널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그래서 만덕의 소원은 참으로 당돌한 요구였어요.

제주 사람이,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육지의 땅을 밟는다는 것은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조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만덕의 의로운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만덕은 왕의 허락을 받고 금기를 뛰어넘어 육지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답니다.

왕이 머무르는 궁궐은 아무나 들어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일개 평민이 궁궐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더구나 왕을 만나는 것은 벼슬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덕에게는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명예직이 내려집니다. 만덕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의 몸으로 왕을 알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남자들도 평생에 한 번 가기 힘들다는 금강산까지 유람하면





서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메이저 리그에서는 4월 15일이면 모든 선수들이 42번을 달고 뛰니다. 흑인으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재키 로빈슨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재키 로빈슨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차별을 받았지만, 곳곳이 이겨내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어요. 그의 노력은 이후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메이저리그에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재키 로빈슨은 차별의 벽을 허문 상징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지요.

만덕의 행동도 바로 사회적 차별을 허무는 행동이었어요. 제주 사람이라는 차별, 여성이라는 차별을 공식적으로 깨뜨렸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자국을 내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라서 안 돼, 제주 사람이어서 안 돼, 평범한 사람이어서 안 된다는 차별을 극복하고 역사의 기록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겨 놓았던 것이에요.

정직과 신용으로 일군 신뢰

경주 최씨 가문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흥년에는 땅을 사지 말고, 재산을 만 석 이상 지니지 말며,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최씨 가문의 가훈은 혼자 잘 사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만덕의 선행은 바로 이러한 정신과 닮아 있어요. 만덕은 자신의 이익보다 상인으로의 윤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싸게, 그러나 많이 판다”, “알맞은 가격으로 사고 판다”, “정직한 믿음을 판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장사를 했다고 하지요. 만덕의 장사 원칙은 재산을 쌓는 것보다는 공동체와 공존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었어요.

기업가들의 목표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예요. 만약 만덕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다면 <허생전>에서 허생이 과일과 말총을 독점하여 폭리를 취한 것처럼 탐욕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이예요. 하지만 만덕은 그러지 않았답니다. 만덕은 정

직을 앞세워 장사를 했어요. 제주 사람들과 공존을 위해 노력한 만덕의 상업술은 상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었지요.

만덕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제주해녀들의 모습과도 닮아있어요. 공동체의 질서를 보여주는 불턱의 문화, 약자를 배려하는 할망바당 등에서 보이는 해녀들의 공동체 정신은 만덕이 상업을 통해서 추구했던 가치와 다르지 않지요.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마음을 만덕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예요.



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金鍾周大母大施島饑被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殊異之恩至入金剛山搢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有也書贈此扁以表其家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번역: 김익수)

세(世) - 세대를 넘어 전하는 만덕의 정신



- 만덕을 기억하며
- 나눔으로 이어진 길
- 시대의 빛이 되는 나눔의 문화

만덕을 기억하며

만덕은 1812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선사업에 힘을 쏟은 만덕은 제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제주에 유배를 온 추사 김정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전해지는 만덕의 선행을 듣고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뜻의 <은광연세 恩光衍世>라는 글씨를 후손에게 써 주었습니다. 추사의 글씨처럼 우리나라 변방의 섬, 제주에서 보여준 만덕의 선행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어요. 정조가 만덕의 기록을 통해 남기고자 했던 것, 추사가 글씨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한 만덕의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을 택했어요. 경제적인 풍요로움보다 나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풍요로움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나눔을 통해 쌓아올린 보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덕과 같이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주 사람들은 “전대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후대에도 듣지 못할” 갑인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만약 나만 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모른 척 했다면 제주 사람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IM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금을 내놓은 것처럼 자발적인 나눔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이죠.

나눔으로 이어진 길

제주의 여성들은 만덕의 뒤를 이어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진 고수선 여사는 6.25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홍익보육원을 운영하면서 구호활동을 펼쳐,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봉사는 과거 만덕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





선 여사는 나눔을 실천하는 만덕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김만덕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어요.

또한 아일랜드 출신의 메리 스타운톤 수녀는 1976년부터 20여 년 동안 한림 이시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병에 걸려도 가난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 봉사를 했어요. 국적은 달랐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성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김만덕상을 수상했어요.

이처럼 제주도는 이웃 사랑에 헌신적으로 앞장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김만덕상을 수여했어요. 수상자들은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만덕이 보여준 나눔의 빛을 이어간 사람들이에요.

시대의 빛이 되는 나눔의 문화

오늘날 나눔은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란 쉽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바쁜 일이 끝나고 한가하면 해야지 하는 생각에 자꾸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면 거창한 나눔이 아니더라도 한 번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돈이나 물품 등의 기부를 통해 도움을 주는 재산 나눔을 할 수 있어요. 또 자원봉사와 같이 지식과 기술로 도움을 주는 일손 나눔도 있지요. 헌혈과 같은 생명 나눔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뒤쳐지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만덕의 정신은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요.
나눔의 문화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첫 걸음
이에요.

만덕은 고아에서 기녀로, 다시 상인으로, 그리고 나눔의
표상으로 성장했어요. 만덕은 죽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사라
지지 않고 우리 시대의 귀감이 되는 인물의 모습으로 지금까
지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신의 옆에 누군가가
갑인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덕
과 같이 수백 석의 재산을 내놓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쌓
아놓은 마음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만덕을
기리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김만덕의 얼을 잇는 김만덕 기념사업회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도전과 나눔의 표상인 김만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김만덕에 대한 학술사업과 더불어 쌀 천 섬 쌓기, 만 섬 쌓기 행사를 통해 의인 김만덕이 보여준 나눔의 삶의 가치를 알렸으며,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다양한 기부 활동과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에 걸맞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김만덕 국가표준영정 제82호

김만덕 스토리 북 II - 은광연세(恩光衍世)

펴 낸 곳 김만덕 기념관

펴 낸 이 관장 김상훈

글 쓴 이 양진건, 김진철

그 린 이 정지란

교 정 김현주, 김옥선

진 행 박민, 고대일, 김미영, 김민아, 김창현, 김현주

제 작 도서출판 비지아이

발 행 일 2016. 9. 30

주 소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전 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2016 김만덕기념관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